

Special

입문에서 다음 단계로, 미들클래스 톨보이 스피커 7기종을 만나다

유리 인클로저로 만들어낸
가장 맑고 깨끗한 사운드

Waterfall Audio Victoria Evo

글 정우광





고 나서는 신뢰도가 떨어진 듯한 분위기였다. 그래서 재차 강조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해 주기도 귀찮아서 자신이 직접 들어보고 나서 판단해볼 일이라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만큼 유리로 된 인클로저는 혁신적인 것이었고, 그 혁신이 시각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재생음의 질도 우수한 것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공연장을 건축할 때 실내의 마감재로 고려되는 첫 번째의 요소는 음향적인 요소이다. 그 밖의 많은 요소들은 음향이라는 항목에서 서로 대립되었을 때 양보를 하게 마련이다. 실내 음향을 설계하면서 이러한 음향적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소재의 선택 시에 가장 나중에 생각하게 되는 것이 유리 소재로 알려져 있다. 밀도가 높고 표면의 경도가 단단하여 거의 모든 음향을 에너지 손실 없이 반사시키는 능력을 보유한 소재가 유리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음향 기기에서는 사용이 터부시되는 소재였다. 그런데 이 소재만을 가지고서 스피커 시스템을 만들어낸 회사가 있는 것이다. 과거에도 오디오 쇼에 나가보면 유리 소재를 사용한 제품들이 있었는데, 유리의 투명성 때문에 기기의 내부를 보여주기 위한 전시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제품을 절개하거나 한쪽 면을 유리로 바꾸어 내부를 훤히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리 소재의 주된 용도였다. 하지만 워터폴 오디오에서는 이러한 선입견을 과감하게 깨뜨려 버리면서 완벽한 유리 소재로만 이루어진 스피커 시스템을 완성시켰다. 이 제품이 시장에 소개된 지도 한참이 흘렀지만 꾸준히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하나 제품의 숫자가 추가되는 것은 투명한 모습의 아름다운 자태뿐만 아니라 오디오 기기로서의 음악성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작년 가을에 리뷰 기사가 나가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리뷰에 쓰인 것처럼 다른 스피커 시스템과 별 차이 없이 소리가 나오느냐 하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내 대답은 한 번 들어보라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어찌된 일인지 나의 리뷰 기사 내용을 믿지 않는 눈치들이었다. 이전의 다른 리뷰는 그런대로 신뢰를 얻고 있다고 생각해 왔었는데, 이 워터폴의 제품을 리뷰하

것이 이 제품이 갖는 상징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집을 위한 시청 기기로는 케인의 A-300P MK2와 TDL-18CD가 준비되었다. 그다지 높지 않은 능률이라 실내를 채우는 음의 크기와 밀도가 우려되었지만 실제의 청감상의 능률은 수치보다 높아서 시청 공간을 가득히 채우는 음이만 들어지고 있었다. 특히 저음역의 풍성한 울림은 유리의 높은 강성과 낮은 공진점 때문에 에너지감이 넘쳐나고 있었다. 이 대목은 유리로 된 인클로저의 덕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다. 목재의 인클로저에서 얻기 힘든 강성의 재질이기 때문에 얇은 두께의 인클로저의 사용에도 음의 에너지는 넘쳐난다. 출력이 큰 앰프와의 연결은 이 제품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인데, 채널당 150W 안쪽의 앰프와의 매칭이라면 고품격의 사운드 스테이지를 구성할 수가 있다. 시각적인 만족감과 음향적인 만족감 두 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데, 워터폴의 빅토리아 이보는 바로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제품이다. 그것도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이 더욱 매력적인 제품이다. **A**



수입원 SP-오디오 (070)7119-5287
 가격 447만원 구성 3웨이 4스피커 사용유닛 우퍼 21cm, 미드·우퍼(2) 15cm, 트위터 2cm 재생주파수대역 42Hz-28kHz(±3dB) 임피던스 8Ω 출력음압레벨 89dB 권장 앰프 출력 40-250W 크기(WHD) 25×101×25cm 무게 17kg